

조선초 간행 '삼국유사' 발견

범어사 개사이래 첫 소장유물 학술조사

'함허어록' 등 성보 1천6백여점 '햇빛'

연내 학술세미나 열어 소장유물 재평가

현재 보물 419호로 지정돼 있는 <삼국유사>(서울대박물관 소장)와 동일본인 조선 태조조(재위 1392~1398)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유사> 1책(冊)이 발견됐다. 또 <대전화상주심경(大顯和尚注心經 1411년)> <함허어록(涵虛語錄 1440년)> <지공지지(指空直指 1475년)> 등 임진왜란 전에 간행된 불서들이 쏟아져 나와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유물들은 조계종 제14교구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가 개사(開

寺)이래 최초로 실시한 소장유물 조사에서 발견 공개된 것. 성보전시관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 범어사가 경성대 한국학연구소(소장 강대민)에 의뢰, 지난 5월 한달간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전 계 1천2백여점 3천여책, 목판 2백6판, 현판 21점, 서화·골동류 1백21점 등 총 1천6백여점의 성보가 발견됐다. 한국학연구소측에 따르면 이 가운데 22종 283점이 중요유물로 밝혀졌고, 부산시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번 학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손꼽히는 유물은 <삼국유사> 권4~권5 1책. 보물 419호로 지정돼 있는 책과 동일 간행본인 이 책은 보존 상태가 양호해 끝부분 몇 장이 떨어져 나가고 없는 보물 419호를 보충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또 <불조역대통제>(1420년),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변상>(1570년), <영가집>(1525년) 등과 범어사에서 간행한 '천수(千手)'(1676년), '범어사 사적기' '어신집' 등의 목판

과 1863년 제작된 '극락해상도' 등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돼 불교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들 유물들은 26일 열리는 부산 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것이 확



범어사 수장고에서 발견된 <삼국유사> 1책(冊). 서울대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419호 <삼국유사>와 동일본으로 밝혀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간다라 미술대전을 보고

장충식 교수(동국대 박물관장)



불자들에게 있어 간다라는 무엇인가. 동서문화의 요충지요, 서구 헬레니즘문화와 로마 중 미술양식이 불교의 사상과 전통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잉태한 환상의 도시 유적이다.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의 걸출한 인물, 아소카왕을 비롯하여 기원 2세기 경 카니시카 왕대에 더욱 번창하였던 불교 미술의 요람이다. 이 지역은 인도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인 불상의 발상지로써도 잘 알려져 있거니와 중부 마투라 지역에서도 기원 1세기경 거의 같은 시기에 불

상을 지냈다. 부처님의 탄생은 동쪽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음악적 요소가 흐르고 있다. 이는 아가 부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부조상에서 뿐 아니라 모든 조각상, 일대면 궁중생활이나 유성술가상 등 모든 조각상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간다라 불상의 특징은 살아 움직이는 동적인 부조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고대 조각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 가운데 전자는 외래양식, 후자는 고유양식의 양대 축을 형성하지만, 간다라지역은 고대 인도의 서북 지방인 페샤와르 분지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서구중 불상양식의 본거지가 된다. 불상의 모습은 어딘지 생동감 넘치는 인간미를 지니고 있으며, 안용의 표현 자체에도 심오한 불성의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각된 석질이 우리의 화강석 암질과도 다른 연질의 집관암 계통인 점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때로는 절묘로써 빛을 뒀던 화각을 일으키는 것 역시 간다라 조각이 지닌 고전적 감각의 완성이자, 수많은 부조상이 나타내고 있는 대소의 조각상은 각기 독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듯 하지만 이들은 모두 중요한 조화와 조화 속에서 유기적인 관

“부처님 부조상 살아 움직이는듯”

상들의 특성을 보게 된다. 이들의 특징 가운데 전자는 외래양식, 후자는 고유양식의 양대 축을 형성하지만, 간다라지역은 고대 인도의 서북 지방인 페샤와르 분지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서구중 불상양식의 본거지가 된다. 불상의 모습은 어딘지 생동감 넘치는 인간미를 지니고 있으며, 안용의 표현 자체에도 심오한 불성의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각된 석질이 우리의 화강석 암질과도 다른 연질의 집관암 계통인 점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때로는 절묘로써 빛을 뒀던 화각을 일으키는 것 역시 간다라 조각이 지닌 고전적 감각의 완성이자, 수많은 부조상이 나타내고 있는 대소의 조각상은 각기 독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듯 하지만 이들은 모두 중요한 조화와 조화 속에서 유기적인 관

박범훈 교수

불교음악 박사 1호 탄생

“현대찬불가 전통성 보완해야” “화청·평염불은 순수 한국법패”



관한 연구'로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범훈 교수(중앙대 작곡과·국립중앙관현악단장). 불교음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음악인으로서 박교수의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전(佛典)상에 기록된 불교 음악'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수용' '불교음악의 한국적 전개' '창작 찬불가' 등 485쪽에 걸쳐 총 4장으로 구성된 이번 논문에서 박교수는 "불교음악의 발전은 전통음악의 발전과 직결되는데 현대 찬불가는 전통성을 상실한 부분이 많다"며 "현대 찬불가의 한국적 전개 운

동을 위해서는 불교음악의 실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작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논문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박교수는 또 "2년에 걸쳐 경전속에 나타난 불교음악에 대한 묘사를 꼼꼼히 분석 해본 결과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열반 등 성스러운 종교체험의 세계가 모두 음악적으로 표현돼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적 법패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전래된 법패가 오랜 시간을 통해 한국적인 율(律)로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역시 중국에 있다"며 "하지만 우리

가락과 어문에 맞춰 창작된 화청과 평염불은 음율이 민속적이기 때문에 순수한 한국법패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논문에서 조선시대에 쓰여진 <사리영응기(舍利靈應記)>를 인용해 세종이 직접 찬불가를 작곡하게 된 동기와 곡명, 가사, 악기연주자와 악기 편성 등을 소개했으며 세종이 지은 찬불가의 음악적 특성까지도 추론해 냈다.

5년동안에 걸쳐 완성한 이 논문은 인도의 고대 불교음악과 중국에서 새로 창작된 법패음악, 세종대왕의 불교 음악 작곡 등 국내외 각종 회귀자료와 주장이 다수 수록돼 있어 불교음악의 교육적 자료는 물론 후학들이 불교문화권의 음악을 비교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범훈교수의 논문은 내년 2월경 단행본 <한국불교음악총론>으로 출간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갈항사지 팔부신중상 직지사 박물관에 이관

면사무소 뜰에 방치되어 있던 갈항사지 팔부신중상(八部神衆像) 4기가 직지사 성보박물관(관장 홍선스님)에 봉안됐다. 높이40cm 폭1.45m 두께20cm 크기의 갈항사지 팔부신중상은 70년대초 김천시 갈항사터에 있는 보물 제245호 석조석가여래불상의 보호각을 설치하기 위해 땅파기작업을 하던중 발굴되었으며 10여년전 2기를 분실했다가 대구에서 암거래 직전 회수된후 보안을 위해 남면사무소 뜰에 보관해 왔었다.

그러나 관리소홀로 훼손이 우려되던중 직지사측의 요구로 이윤하게 됐으며, 보존처리를 향후 전시할 예정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잃어버린 문화재 찾습니다”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사이트' 신설

"사라진 도난문화재를 찾습니다." 문화재청이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도난문화재' 코너를 신설, 잃어버린 문화재에 대한 안내와 함께 회수에 나섰다.

이 코너에는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도난 당한 문화재 87건을 수록했다. 각 문화재마다 문화재명, 지정종별, 도난일시, 도난목록, 원소유자, 도난장소, 사진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보물 제1043호인 송광사 16국사 진영, 고승 육전사 영산 회상도 등 지정문화재는 물론 보존 가치가 높은 비지정문화재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문화재 찾기' 검색엔진을 설치, 정보량도 4만5천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세계유산' 코너에는 석굴암 등 7건의 세계문화유산과 기록 유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재 원형복원' 코너에는 총 54건의 훼손된 문화재를 3차원 입체영상(VRML) 기술로 복원된 원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http://www.ocp.go.kr 오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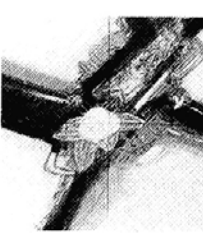
원성스님 '동승의 세계' 경인미술관



천진한 동자승을 화폭에 담고 있는 원성스님이 18일부터 24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동승의 세계' 개인전을 연다.

해남 대흥사와 인도에서 1년간 작업했던 '청정한 비랍과 나' '오직 한마음' '도반을 그리며' 등 1백여점이 출품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원성스님은 보다 성숙해진 동자승의 모습을 선보이고, 구도여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 표현하고 있다. (02)733-4448

이종봉씨 '동자승의 꿈' 공평아트센터



"불가의 인연법은 이 세상의 모든 유·무정물에 적용된다." 18일부터 24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종봉씨의 '화향-동자승의 꿈'전은 부처님의 인연법을 비구상의 참으로 엿볼 수 있는 전시회다.

연꽃, 목어, 모탁 등 박씨가 즐겨 채용하고 있는 그림의 소재들은 하나같이 굵고 검은 선 위서 끊일 듯 이어져 있다. 마치 서로가 귀 기울여 듣고 바라보며 또 다시 다른 유·무정물로 변형되어 탄생하는 순간을 기다리듯. (02)733-9512

무진장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강좌 육조단경 대강좌(1년)

근세 한국불교포교에 앞장섰던 무진장 큰스님께 직접 대승불교경전을 공부할 평생경전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뜻을 기리고 수행공부코저 합니다.

- 1.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 2.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로터리 웅진갤러리 2층)
- 3.개강일시 1999년 9월 5일(일) 오후 6시
- 4.입지수계 매과목 경전공부후 정기적으로 무진장 큰스님으로부터 입지수계
- 5.입학금 50,000원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불교교리강좌개강(3개월)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냐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7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가을반)
-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로터리 웅진갤러리 3층)
- 3.개강일시 1999년 9월 1일(수)오후 7시
-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사상 및 사찰예절
-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 6.교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 8.지원자격 제한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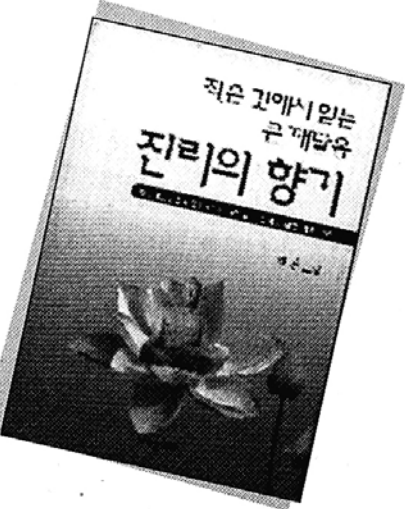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부산 BBS 불교방송국에서 1년간 강의된 기초교리 21C기를 겨냥한 불교기초교리 강좌

진리의 향기

원천스님
 ■ 동대사 교무국장 역임
 ■ 동대사 포교국장 역임
 ■ 동대사 총무국장 역임



● 작은 것에서 얻는 큰 깨달음 ●

불교신도 중에는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 없이 무조건적으로 불교를 믿는 경우가 많다.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찰예법이나 교리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BBS 불교방송국에서 <진리의 향기>란 제목으로 방송 강의된 내용들을 보강하고 재편집하여 초심자들이 불교의 기초교리를 공부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알찬 내용들만 묶었다.

- 출판기념법회
 - 일시 : 1999년 8월 31일
 - 장소 : 부산 코모도 호텔 중무홀
 - 시간 : 저녁 7시
 - 문의전화 : 0525-329-1056
- 출판기념법회를 역 예정이오니 무후 참석하시어 자비를 베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